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비약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는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961)년10월 ~ 주체56(1967)



함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 50(1961)년 10월 7일

(1면에서 계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함흥모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책임일꾼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대규모의 직물생산기지로 전변된 함흥모방직공장은 지난 기간 인민들의 입을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오늘도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개를 떨치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역세계 전진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장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견철방직직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견철방직직장에서 생산되는 비날론천사와 비날론실로 짠 각종 방직제품들을 보

시고 그 질이 높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어제는 2.8비날론천합기업소에서 16년만에 비날론폭포로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오더니 오늘은 함흥모방직공장에서 17년만에 인민들에게 보내줄 여러가지 비날론천들을 생산해내는 희한한 광경을 펼쳐놓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오랜 시간 방직기와 직기들사이를 오가시며 정방공들과 방직공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비날론천생산기지를 훌륭히 꾸려놓고 비날론천을 다량생산해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비날론천생산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설해주신 비날론공업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칠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 성과는 당의 요구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인민이 지닌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빛나는 발현으로 된다고 지적하시였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나라의 방방곡곡에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창조물들이 련이어 솟구쳐오르고 용을 쓰기 시작한 결과 우리 인민이 그 덕을 볼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입을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함흥모방직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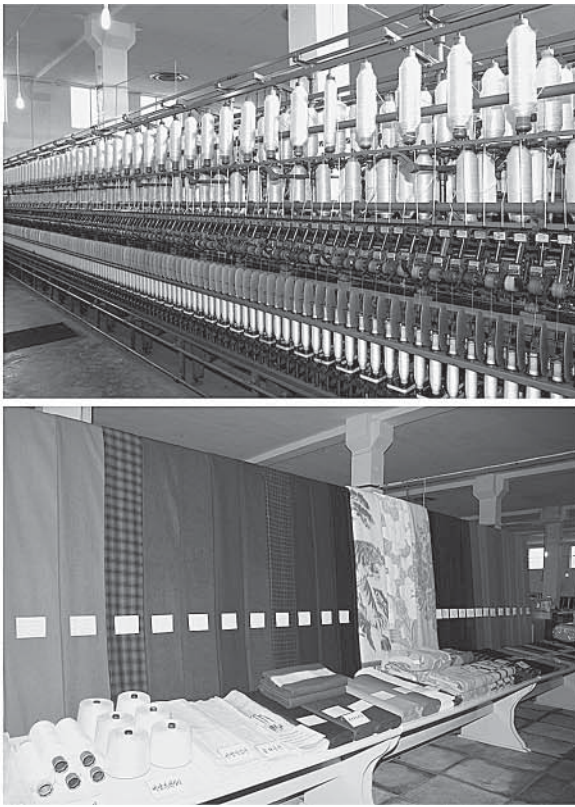
김정일장군님께서 함흥모방직공장의 로동계급이 당의 경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려 질좋은 옷감을 더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비약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는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3.8 국제부녀절에 즈음하여 조로예술인들의 합동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3.8 국제부녀절에 즈음하여 여성일군들과 함께 3월 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우리 나라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과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합동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을 극장에서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단장 겸 수석지휘자인 바벨 오브싼니코브와 관현악단의 행정지배인 나탈리아 세묘노바,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러방 특명전권대사 왈레리 추히닌이 맞이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관현악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조선여성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여성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워주시였으며 보람찬 삶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온 나라 전체 여성들의 다함없는 호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3.8 국제부녀절을 맞는 여성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여성들의 혁명적기개를 높이 떨치며 조국청사에 빛날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있는 우리의 전체 여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

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평양시에 있는 여성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녀맹일군들, 평양 시내 공장, 기업소의 여성로력혁신자들과 여성작가, 기자, 방송원, 창작가, 예술인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러방 특명전권대사와 부인, 대사관의 공식외교관들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무대에는 혼성합창 《선군시대 여성찬가》, 여성6중창과 합창 《녀성은

꽃이라네》, 남성독창 《나의 어머니》, 《사랑의 봄빛》, 음악 《돈돌라리》, 남성독창과 방창 《우리 집사람》, 여성독창과 방창 《영웅의 안해될출 꿈에도 몰랐어요》, 합창 《찬란한 미래 향해 앞으로》, 이전 소련노래들인 혼성2중창 《은방울꽃》, 혼성8중창 《축배》, 이딸리아노래 혼성4중창 《그대를 위해 내가 산다》, 메히꼬노래 여성독창 《밤볼레오》, 격경2인무 《나뽤리 따란펠라루용곡》, 기교종목 《노래하는 큰 잔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두 나라의 인민배우, 공훈배우들과 국제포글수상자들을 비롯한 이름있는 지휘자, 연주가, 성악가들이 출연한 공연은 높

은 예술적기교와 훌륭한 형상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공연이 끝난 후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의 지휘성원들을 만나시고 훌륭한 합동공연을 진행하여 3.8 국제부녀절을 뜻깊게 맞는 우리 여성들에게 기쁨과 고무를 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책임일

군들,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교향악단에 예술인들은 공연무대에 교향조곡 《조선아 너를 빛내리》, 관현악 《변이 나는 내 나라》, 《아리랑》, 《요일풀이노래》, 외국곡 《꿈꾸는 미인》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울렸다.

공연이 끝나자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의 호모의 열정으로 하여 장내는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국립교향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이 새로 창작한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음악은 인간학 인것만큼 사람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아름답고 풍만한 예술형상으로 그려내어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교향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회주의문화예술의 참된 창조자, 결결한 옹호자가 되며 힘있는 교향악으로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대진군을 적극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올해에 다시 한번 경제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동력으로 호소한 김철로동자들의 편지에 호응하여 공화국의 전민이 희망찬 2012년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2011년. 희망찬 배일을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참으로 기세차다. 한편면 반드시 하고 자기의 리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순간의 답보도 모르는 것이 조선인민의 기질이고 배짱인 것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민족들도 많고 강국이라 일컫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외세의 강권과 전횡에 짓눌려 기를 펴지 못하고 사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풍부한 자원과 발전된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자에 명줄을 건 탓에 숨겨진 세를 민족들도 있다.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며 그 어떤 결심도 내리지 못하거나 막아서는 시련과 대세의 중앙에 못이겨 스스로 결심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 오늘의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러나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외세의 정치군사적위협공갈과 경제적봉쇄, 제재와 같은 온갖 도전과 간섭행동은 이 땅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도 밑에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자위적역제력을 가진 강국, 하자고 결심만 하면 무엇이든 다 하는 자력경쟁의 강국으로 되었다.

광광 생산하는 대기적인 한다면 반도시 하는 조선의 일일단결의 기상과 과학기술적잠재력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약소국의 명예를 걸머지는것을 속명으로서 여겨야 하였던 조선은 지구상에 서 빛마져 잃었던 나라, 땅과 국호는 물론 말과 글 지어는 고유한 성과 이름마저 빼앗기지 않으면 안된 불우했던 나라였다. 허나 위인을 모시던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되고 민족도 위대한 민족으로 그 존엄과 기개를 떨칠 수 있다는것을 오늘 공화국의 현실이 보여주었다. 이 땅에 펼쳐지는 기적적인 사업들은 조선을 세계에 빛내이려는 위대한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에 의해 마련되는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자신께서는 하자고 결심하여 언제 한번 못한것이 없다고, 반드시 이기고야마는 백두산기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색과 노력으로 강성대국건설명도실록을 수놓아가고계신다. 그이의 위대한 령도의 자욱자욱은 최첨발전소건설장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의 생산기지로 뛰어들어 이어나오고있다.

은 나라 인민들에게 자기의 신념대로 결심하고 마음먹은대로 실천하는 조선의 본태와 힘을 배가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소환의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해 1월 발전소건설장들과 야금기지, 광산, 제련소, 돼지공장, 수산기지, 식료공장들을 비롯하여 찾으신 단위만도 20여개나 되며 한해가 다 저무는 12월 평양 안안 불우했던 나라였다. 허나 위인을 모시던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되고 민족도 위대한 민족으로 그 존엄과 기개를 떨칠 수 있다는것을 오늘 공화국의 현실이 보여주었다. 이 땅에 펼쳐지는 기적적인 사업들은 조선을 세계에 빛내이려는 위대한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에 의해 마련되는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자신께서는 하자고 결심하여 언제 한번 못한것이 없다고, 반드시 이기고야마는 백두산기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색과 노력으로 강성대국건설명도실록을 수놓아가고계신다. 그이의 위대한 령도의 자욱자욱은 최첨발전소건설장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의 생산기지로 뛰어들어 이어나오고있다.

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신분이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철이 자워라면 총대이고 쌀이고 사랑이라고 하시며 주제대소환의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해 1월 발전소건설장들과 야금기지, 광산, 제련소, 돼지공장, 수산기지, 식료공장들을 비롯하여 찾으신 단위만도 20여개나 되며 한해가 다 저무는 12월 평양 안안 불우했던 나라였다. 허나 위인을 모시던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되고 민족도 위대한 민족으로 그 존엄과 기개를 떨칠 수 있다는것을 오늘 공화국의 현실이 보여주었다. 이 땅에 펼쳐지는 기적적인 사업들은 조선을 세계에 빛내이려는 위대한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에 의해 마련되는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자신께서는 하자고 결심하여 언제 한번 못한것이 없다고, 반드시 이기고야마는 백두산기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색과 노력으로 강성대국건설명도실록을 수놓아가고계신다. 그이의 위대한 령도의 자욱자욱은 최첨발전소건설장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의 생산기지로 뛰어들어 이어나오고있다.

의 봉화, 자력경쟁의 불길에 성강과 김철, 황철을 비롯한 나라의 대규모모속공장들에 세차게 타라진 결과 오늘날 공화국의 야금공업은 드디어 주제철생산체계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대개도간석지건설자들은 달의 인력을 차단하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던 바다를 막아 한개의 면적과 맞먹는 8 800정보의 새 땅을 얻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최첨단돌파의 열풍속에 《련하기계》 생산자들은 고성능형CNC공작기계인 새형의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개발하고 이제는 보다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인민들의 애국심을

활화산마냥 불타오르게 하였으며 강성대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조선의 결심과 의지는 곧 현실로 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의 결심은 장군님의 결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결심하시면 조선은 한다. 이것이 바로 강성대국을 향해가는 공화국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령도자의 뜻을 애국의 한마음 한뜻으로 받드는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에 의해 강성번영의 그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명금룡



강성번영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희천발전소건설장



날바다우에 장쾌하게 일떠선 대개도간석지



우리 식의 CNC 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고있다. —최첨단하기계종합공장에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락관속에서 결연히 일떠서며 역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락인의 행군으로 전환시키고 강성대국건설의 포성을 장엄히 울린 때로부터 1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 공화국은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있다. 밝은 자기 땅에 불이그고 눈을 세계를 보는 자신만만한 담력과 배짱으로 최첨단을 돌파해가는 공화국인민은 이미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을 성공적으로 개발발사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했고 핵기술은 물론 CNC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광란하는 날바다를 길들이 조국의 대치를 우도별로 전변시킨 대개도간석지건설완공과 주제철, 주제섬유, 주제비료를

위인의 명언

군사를 중시하고 국방공업을 발전시켜야 강성대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는 뜻이다. 강성대국은 강력한 군사적지반위에 선 나라이다.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의 제일중대는 군력강화이다. 부강조국건설에서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라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시이께서는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뻗신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군력강화에서 기본인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오시었다. 지난 10여년간에만도 그이께서는 대덕산과 오성산, 초도, 1211고지, 35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성의 전역을 중흥무진하시며 총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었다. 비오나 눈오나 가림없이 가파롭고 험한 준령들을 넘고넘으시고 파도사나운 해초도 헤치시며 조국수호의 진지들과 초소들로 이어가신 위대한 령장의 전선강행군은 혁명의 길은

《군사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며 국방공업은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다》

순란한 길이 아니기때문에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내리면 외투를 입고 편안하게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열째도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 그이의 총대종시의 신념과 의지가 빛발친 선군장정이었다. 명장의 밑에는 약졸이 없다. 장군님의 령도가 있어 반공화국적대세력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대답하는 멸적의 의지가 조국의 방선마다에 차린치고있다. 지남해에 평양에서 있는 열병식과 포사격훈련을 비롯하여 군위양구부대의 훈련과 대련합부대의 종합훈련, 특혜공군합동훈련은 장군님의 령도밑에 불패의 무적강군으로 장성한 조선인민군의 위용에 대한 힘있는 과시였다. 국방공업은 강력한 군력의 기초이고 물질기술적담보이다. 군사선행의 위대한 국방공업을 떠나 나라의 군력에 대해 말할수 없다. 최리해군의 비범한 예시를 지니신 장군님께서께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계승발전시킨것이다. 국방공업의 기초는 중공업이며 중공업의 발전을 떠나 국방공업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중공업이 자 국방공업이며 국방공업이자 중공업이다. 국방공업이 발전하면 이 부분의 최선과학기술이 중공업을 비롯한 중공업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중공업의 발전을 추동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께서는 국방공업에서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현대과학기술장비들을 개발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국방공업은 자립적민족경제의 기둥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다고 하시면서 국방공업을 계속 최우선시하여 조국의 안전과 승리적전진을 든튼히 담보할수 있는

민족적 자립성을 귀중히 여기시고

수천수만 갈래로 뻗은 각이한 인생행로를 민족단합이라는 하나의 길로 이어준 위대한 은인의 품에 대한 자욱을 남긴 나라의 유망무망의 애국자들 가운데는 민족자본가였던 리종만선생도 있다.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려 할 때였다.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며 늙으신분이 먼길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시면서 회의참가자들에게 리종만선생을 소개하시었다. 순간 리종만선생은 이름할수 없는 감동과 더불어 마음이 개운해지는것을 느끼었다. 사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기 전까지만 하여도 북에서 대기업인 자기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하는 위구심을 품어놓아 버렸던 리종만선생도 그때였다. 경성남도 울산에서 태어난 리종만선생은 해방전에 큰 광산들과 수백개의 광사를 가진 《대동광업주식회사》와 수백명원의 토지를 가진 《농림주식회사》 그리고 평양의 《대동공업전문학교》를 비롯한 10여개의 교육기관과 출판사들도 경영하였다. 해방후에도 그는 남조선에서 많은 광산, 탄광, 공장들을 운영한 대차본가였던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도 그에게 위안을 주지 못하였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대로는 리종만선생이었던 것이다. 그날 회의에 참석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께서는 밝은 안광으로 참가자들을 살펴보시다가 리종만선생을 찾으셨다. 그때 리종만선생은 가슴이 울림을 느꼈던 그는 얼얼한 몸을 일으켰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듯 못박혀 서있던 그는 열사장의 재촉을 받고 서야 마음을 다잡으며 주석단으로 올랐다. 그가 섰듯 평양으로 걸음을 옮길 용기를 내게 된다는 평양에서 민족의 태양이

본사기자

후세에 물려지는 민속전통

동심세계에 맞는 민속놀이

주제87(1998)년 10월 어느 날이었다. 조상전례의 민속유산과 민속전통을 적극 살리고 장려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그날 아이들의 민속놀이에 대해 언급하실 때 그전에는 팽이치기와 제기차기, 매부치기, 유리알치기를 비롯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유희가 많았다고, 어린이들이 강물우로 돌팔매질을 하여 돌이 물위로 떨어번 스쳐지나가게 하는 놀음도 많이 하였다고 하시며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동심세계를

그러보시었다. 오늘날 연, 팽이, 윷, 장기 등 여러가지 민속놀이감들을 전문으로 파는 오락기구전문상점들이 줄줄이 생겨나고 이르는 곳마다에 민속놀이감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제97(2008)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리원의 민속거리로 찾으신것을 매였다. 현대적이면서도 민속미가 짙은 특색있는 민속오락장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추울 때나 더울 때에도

이장들이 꾸려져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민속놀이로 흥성거리게 된것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시는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에 따른것이다. 대표적인 민속놀이장의 하나가 사리원의 풍치수려한 경암산기슭의 민속거리에는 민속오락장이

시민들이 찾아와 오락을 할수 있도록 실내와 야외에 오락장을 각각 만들어놓은것이 좋다는데 대해 지적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사람들속에서 추서명은 절의 흥취를 돋우어주는 씨름경기

의 전통적인 민족경기의 하나인 씨름은 고려이전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생겨났것이라고 밝혀주시었고 7월백중날과 8월추석날에 제일 많이 한 조선사람들이 좋아하는 전통적인 민족경기라고 가르치시었다. 그이께서는 그날 씨름을 비롯한 민족경기를 잘 살려야 한다고, 민족경기를 우리 시대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하여 풍치수려한 모란봉의 씨름터에서 2002년에 첫발을 연 대항상선군민족씨름경기가 해마다 사람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리복순

조국통일 3대헌장은 불멸의 자주통일대강

은 민족이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전환적극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의 가치를 높이고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은 불멸의 자주통일대강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조,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어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 교훈을 분석총화하신대 기초하여 제시하신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선반도의 현실적조건과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길을 밝혀주었고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의 강령이다.

우리 민족은 어떤 정세와 환경속에서도 조국통일3대헌장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위업

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발표로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것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고고한 투쟁의 고귀한 결실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이 가리키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이 것처럼 바라는 통일도 성취되고 평화와 번영도 이룩될수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어도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시기 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는것은 민족자주통일운동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은 민족이 과감한 투쟁으로 반동일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을 단호히 저지파란시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3대헌장의 가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나아갈 때 조국통일의력사적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말것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에 기어이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과 번영을 이룩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돌이켜보면 2000년 6월 분 려사상 처음으로 있는 북남수뇌상봉에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획기적인 사변을 안아왔다.

공동선언발표이후 평양과 서울, 금강산과 제주도 등지에서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통일행사가 진행되

고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남녘동포들의 금강산관광이 실현되고 개성공업지구에서 민족경제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퍼졌다.

6.15통일시대의 거대한 흐름속에서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관계로 전향되고 조국통일운동은 민족자주의 계도에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북남사이에는 또 한차례의 수뇌상봉이 진행되어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리행하기 위한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됨으로써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위업은 새로운 높은 발전단

계에 올라섰다.

은 겨레는 련이어 펼쳐지는 격동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면서 서머치않아 밝아올 통일조국의 아침을 확신성있게 저러보았으며 기세충천하여 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쳤다.

정녕 6.15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표대이다.

북남관계가 발전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될수록 그것을 가로막으려는 반동일세력의

은 혐악한 지경에까지 이른것은 보수당국의 전대미문의 동족대결책동에 의해 초래된것이다.

6.15이후 자주통일운동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던 감격과 환희의 나날과 북남관계를 대결과 전쟁의 막바지에까지 이르게 한 지난 3년간의 너무도 대조적인 두 현 실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 겨레는 6.15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누구나 메꾸어 절실히 느끼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6.15의 흐름을 이어나가야 한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직접대면확인을 다시금 촉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남조선적십자사 총재에게 남측이 억류된 북측 주민전송환과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4명에 대한 직접대면확인을 회피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8일 그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었다.

통지문은 남측이 부당하게 억류한 우리 주민전송환체제를 가지고 27명 송환이나, 4명의 《자유의사》에 대한 객관적확인방법이 없이 휘나 하면서 그들의 가족들과 우리 를 심히 우롱하고있는데 대

해 문제시하면서 4명에 대한 직접대면확인을 못하겠다고 하는것은 남측당국이 말하고 있는 《귀순의사》표시가 완전한 날조이며 유인랍치라는것을 말해줄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우리측에서 나간 사람들을 직접대면시키겠다고 한적이 있는 남조선당국이 지금에 와서 부당한 구실을 대며 직접대면을 할수 없다고 하는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였다.

통지문은 남조선당국자가 말했다고 하는 3자확인이나

영상물 같은것을 가지고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수 없으므로 부당한 고집을 버리지 말고 이른바 《귀순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는 4명을 데리고 판문점 전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 나와 우리측과의 적십자실무접촉에 조속히 응할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였다.

민일 남조선당국이 직접대면확인을 기어이 회피한다면 우리는 남측의 《귀순》주장을 모략에 의한 유인랍치로 인정하고 단호히 대처할것이라고 통지문은 경고하였다.

본시기자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모략적인 《유인랍치》소동

여론의 못매를 맞는 대결광신자들

최근 남조선에서 통일부장관 현인택과 정보원 원장원세훈이 처신을 바로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통일부장관 현인택은 해외에 나가있는 외교관계인물들이 모인 어느 한 자리에서 이소르체소리 하던 끝에 조미강제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문제를 루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일제히 《북미대화까지 고수 가루를 뿌려 조선반도긴장완화를 원천봉쇄해나선 현인택장관의 실책은 무과할 일이다.》,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이 2009년 취임 당시 무조건대화, 상호신뢰구축, 조선반도

평화창출 등을 약속하였으나 한가지도 지켜진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마추어같은 현인택》을 엄중히 문책하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어 외교통상부까지 현인택의 처사를 두고 《초보적인 외교상교와 거리가 먼 처사》라고 비평하면서 현인택을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이 부족한 인물로 략인하였다.

결국 그 무는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견지를 떠들며 자화자찬하던 현인택이 단단히 입덕을 보는 셈이다.

사태압력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속초침입사건》을 주도한 정보원 원장원세훈에게도 가해지고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

를아닌 남조선의 통일부에게 하고있다. 그런가하면 동족과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하려는것이 아니라 일벌진 《규범사태》설을 늘어놓으며 《비상통치계획-부흥》과 같은 극도의 대결각본, 체체전북각본까지 만들어 거메의 분노를 치듯 하고있다. 현인택과 통일부가 나서서 지금까지 북남관계에서

인한 표류이며 억류된 공화국주민전원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것도 남측당국 스스로가 이미 제 입으로 발표한것이다. 남조선의 언론들이 공개한 당국의 초기조사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들중 단명명도 《귀순의사》가 없으며 북으로 돌아가려 한다는것을 여러차례 명백히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일이 지나서 갑자기 4명이 《귀순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는것은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불순한 모략의 산물이라는것을 증명해주는것이다. 현실적으로 남조선의 《국회》의원들이 폭로한데 의하더라도 남조선당국은 때때로건 북의

통일부가 아니라 《유인랍치부》

은 겨레가 지지찬동하는 북남공동선언들도 짓밟고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주범도 현인택이라는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의 반공화국책소동에 추종하여 그 누구의 《신책포기》를 요란스레 떠들고있으며 북남관계의 길을 좁아지게 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대결과 모략에 이끌리 난 현인택과 원세훈이 인민들의 저주와 증오를 받고 가려한 처지에 빠졌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본시기자 서명수

이 갈려있다. 대화대방을 반 현인택을 비롯한 통일부 패거리들은 지난 시기에 《국군포로》, 《람복자》 문제를 떠들며 인도주의협력 사업에도 갖은 장애를 조성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다른 대북협력에산들은 줄이면서도 《람복자를 지인》한다는 예산확정은 대폭 높이

어졌다. 이 한가지 사실만 놓고서도 통일부가 하는 일이 화해, 협력이 아니라 대결과 북의 체체붕괴책동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통일부는 지금도 극우악질보수패거리들과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여 반공화국모략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의 통일부가 북과 남의 대결을 조작하고 동족의 체체를 부정하

대하는 북침전쟁연습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지는 속에서 표류되어간 북주민들까지 둘러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북남관계에 어떤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하게 되겠는가 남측당국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순의사》니 뭐니 하며 음모적인 방법으로 《유인랍치》소동을 꾸꾸고있는것은 그것을 반공화국대결과 체체붕괴전략실현을 위해 써먹으려는 불순한 책동의 산물이다.

표류되어간 북주민들은 남조선당국의 비렬한 동족대결책동의 제물이 될수 있으며 그들은 하루빨리 자기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비렬한 반인륜적행위를 당장 결어치우고 부당하게 억류된 공화국주민전원을 배와 함께 그들이 나가 해상을 통해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할것이다.

본시기자 윤현주

평화수호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주장

남조선의 민주생평평화통일주권련대가 호소문을 발표하여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주장하였다.

호소문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

로 말미암아 조선반도가 전쟁위험에 휩싸여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은 민족공멸을 초래할것이라고 하면서 호소문은 전국민이 위협침만한 전쟁연습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호소문은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현 당국에 국민의 생명을 말걸수 없다고 하면서 각계각층이 단결하여 전쟁《정권》을 심판함에 대해 강조하였다.

본시기자

여성해방을 위해 투쟁할것을 호소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가 3.8국 제부녀절을 즈음하여 8일 여성해방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오늘 남조선사회의 처참한 현실은 여성들의 처지에 집약되어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민족은 미국에 의해 분열되어 남북대결을 강요당하고 사대매국세력들의 온갖 회도에 시달려왔다고 하면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 여성들이 겪어지고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비정규직노동자의 70%이상이 여성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우

리 여성들이 얼마나 고달프게 살며 멸시받고 있는가를 알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땅의 여성들은 날이 갈수록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여성들을 자본과 패락의 도구로 삼고 불행을 강요하는 반역통치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고 사대매국역적들을 쫓아버리며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여성해방의 초소리를 힘차게 울리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시기자



당국의 폭정을 심판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집회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을 단죄한다

조국통일연구원백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이 강행하고있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최절정에 이르고있다.

핵공포학과 핵탄을 적재한 전투함정집단, 전략폭격비행대들을 비롯한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 피뢰군의 방대한 무력이 하늘과 땅, 바다를 짝 메우고 전쟁연습의 총포성이 진감하고있다.

남조선은 오늘 세계최대의 침략전쟁연습으로,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되고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책동의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은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년례적인 방어훈련》으로서 그 누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떠돌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의 전략적이고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우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범죄적책임을 모면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미군과 남조선피뢰군이 2002년부터 진행되어오던 《연합전시중원》,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2008년부터 그 명칭을 현재대로 바꾼것으로서 훈련의 성격과 내용, 훈련기간과 규모, 투입되는 무장장비 등으로 볼 때 철두철미 우리에게 대한 기습적인 핵선제타격을 노리고 감행되는 북침전쟁연습이다.

이 훈련은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의 주관밑에 유사시 조선반도에 투입되는 《미중원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등을 숙련하기 위한 연합지휘연습과 연합투수작전 및 후방지역 작전을 위한 연합의뢰동원연습으로서 전시에 미군의 신속한 투입과 피뢰군의 작전능력, 남조선의 인적, 물적자원동원능력을 검증하고 평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특히 이 훈련은 우리의 전략적 우충지대를 선제타격하여 점령한다는 새로운 북침전쟁각본에 따라 평시에도 우리에게 대한 침략도발을 감행하기 위한것으로서 여기에는 핵무기제거훈련, 북지역산악극복훈련, 평양시가전훈련, 지휘계집정밀타격훈련, 북쪽지역에서의 치안작전훈련 등 각종 도발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의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그 위험성과 도발적성격에 있어서 극히 무모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우선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서 44가지의 국지전 및 집단전을 예상한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발원지이다.

조선시대 5개 섬에서만도 국지전을 도발할 6가지 유형을 미리 정해놓고 훈련을 벌리다가 《북군대의 이산전후》가 미군과 피뢰군의 정보망에 포착되는 경우 선제타격하며 우리 군대가 그에 대응하면 북의 전략적점들을 타격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국민일보》 2011. 2. 28)

이에 따라 부산과 경상북도 왜관, 일본의 사가미하라, 요코하마의 미군기지에 있는 보급창 등에서 훈련을 명목으로 자행포, 딸자, 장갑차, 수리부속품, 의료물자, 전투식량, 군부 등 미군이 60여일간 전쟁을 수행할수 있

는 각종 장비와 물자들이 전진배치되었다.

이것은 국지전이 발생하면 항공공격을 리용하여 미군병력을 신속히 전개한 후 현지에서 사전배치물자를 접수하여 바로 전면전 접지를 치룰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통일뉴스》 2011. 3. 3, 《서울신문》 2011. 3. 3)

이에 대해 전, 현직 남조선장점 미군사령관들은 《우리는 재래식공격을 넘어선 수많은 실질적인 싸나리오에 맞추어 훈련하고있다》, 이번 훈련은 《전면전이 립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에 대한 군사공격을 검토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검토하였다.

피뢰정부관계자도 《키리졸브》 훈련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국지도발로 시작하여 전면전에 들어가고 전면전을 하면서 북의 내부변화에 대비한 연습》이라고 공언하였다. (《노컷뉴스》 2011. 2. 17, 《연합뉴스》 2011. 2. 15)

또한 이번 연습은 《작전계획 5029》에 따라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구실로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매우 불순한 불량난이다.

미국과 피뢰패당이 조작해낸 《작전계획 5029》는 그 누구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과 남조선피뢰군이 즉시 군사적행동에 이행하여 북을 타격하는다는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한 북침계획이다.

이 작전계획의 골자는 전쟁개시 90일전에 남조선강점 미군특수작전사령부와 미중앙정보국산하 특수작전단, 피뢰군특수부대들을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은밀히 침투시켜 심리전, 테러, 교란 등방으로 《급변사태》를 의도적으로 일으킨 다음 대규모무력침공으로 북을 《진압》한다는것이다.

지어는 북에서 해일과 지진 등 대규모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것을 《급변사태》로 보고 침략을 단행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세상에나 미국과 피뢰패당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인도주의구호사업은커녕 그 기회에 들어치는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전쟁계획을 세우는 전쟁광신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그 기간과 규모에서도 이전시기를 훨씬 통가하고있다.

지자체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3월 8일 부터 3월 30일까지 23일간 진행되었다.

그러나 올해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62일간으로서 지난해보다 무려 39일간이나 더 늘어났다.

또한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과 피뢰군의 병력수도 종래의 수만명에서 올해에는 무려 21만여명으로서 최대를 늘어났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2004년에 조직되어 세계 각지에서 핵, 미사일 등의 탄지와 제거업무를 맡고있는 미북군 제20지원사령부의 특수부대원들이 원자력공격용 잠수함과 특수작전용수상기를 통해 대규모로 참가한다.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동원된 전쟁장비들을 보면 초형핵함공모함 《로날드 레건》호와 이지스순양함과 구축함, 핵잠수함, 《F-117》 스텔스전투폭격기, 《F/A-18》 호넷 전투기, 《E-2C》 조기경보기, 《EA-6B》 전자장비기, 《M1-A1에이

브람스》 탱크, 《M109A6》 자행포, 화생방정찰차, 《M26》 제독장차, 《TALON》 폭발물탐지용로봇, 《K-317》 생물학적정찰차, 《K-221》 적외선차폐체계 등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만큼 방대하다. (《연합뉴스》 2011. 3. 3)

올해훈련에는 피뢰에비군병력도 대대적으로 동원되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과 피뢰도당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시 피뢰에비군병력에 한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비상시집 훈련만 하는것으로 한정시키고 현역과 함께 전방에 투입하는 훈련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처음으로 피뢰에비군을 현역장교들의 지휘하에 전방에 배치하여 실전훈련에 참가시켰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이 감행하는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년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명실공히 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 위험천만한 핵시험전쟁연습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2

미제와 피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책동은 오늘에 와서 비로소 엄중하게 제기되고 있는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피뢰군을 조작성한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남조선에서는 어느 하루도 북침전쟁연습이 그치지 않았다.

미제와 리승만피뢰도당이 1950년 조선전쟁전야에 38° 선일대에서 북침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을 미쳐날뛰다가 끝내 전쟁의 불길을 터뜨렸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후에는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에 따라 1954년부터 해마다 미군과 남조선피뢰군의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어왔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독수리》 훈련이, 1970년대에는 《울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이 해마다 벌어졌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대해 진행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무려 30만여명의 병력과 핵함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총동원되어 2~3개월간에 걸쳐 진행된것으로 하여 악명을 떨쳤다. (《국방백서》 2010. 《통일뉴스》 2011. 3. 7)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은 이러한 《팀 스피리트》 전쟁연습이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자 1990년대에 들어와 그 명칭만 바꾸어 《연합전시중원》,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울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더욱 악랄하게 벌여왔으며 2000년대에 와서는 《연합전시중원》,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울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을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으로 명칭을 바꾸어 해마다 방정적으로 감행하였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이 북침전쟁연습에 얼마나 피눈이 되였는가 하는것은 지난 수십년사이에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17차, 《연합전시중원》 연습은 8차,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24차, 《울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은 33차, 《연합전시중원》,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6차,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4차,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3차나 꼬리를 물고 빈번히 벌어오는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특히 현 피뢰보수패당은 미제와 결탁하여 그 어느때보다 북침전쟁연습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피뢰패당은 집권한 첫날부터 최대규모의 합동화력시범훈련, 대규모신속기동훈련, 대규모에이다이동전개훈련, 최대규모의 공중강습훈련, 대규모해상연합훈련, 민간비행장들과 비상할주에서의 전투기리악훈련, 공중공유훈련, 예비군저격수훈련, 민간기업들의 수송훈련, 민간방공대피훈련 등形形色색의 최대급전쟁연습을 수없이 벌여놓았다.

훈련지역도 서울이북지역으로 점차 옮겨 주로 군사시설연접지역과 조선시대 5개 섬을 비롯 해 해상경계선수역에서 집중적으로 벌리고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0일에 감행된 피뢰군의 연평도 포사격훈련은 북침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전 피뢰국방부 장관이었던자가 2010년 5월 22일에 있는 군부회의에서 《서해 5개 섬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전군의 전투력을 동원해 북의 발전기지자체를 타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실로하였다. (《중앙일보》 2010. 5. 24)

피뢰보수패당이 미제와 야합하여 얼마나 무모하게 북침전쟁연습에 매달려왔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공개된 대표적인 합동군사연습일지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 1월: 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
- 12월: 공중강습훈련
- 2010년 (50차)
- 1월: 공군항공작전 전투태세 연습
- 2월: 반투공대훈련, 공군야간비행 및 진공훈련, 미중원군전개 및 복귀훈련
- 3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반투공대훈련
- 4월: 폭발물처리훈련, 산악구조훈련
- 6월: 《림팩》 합동군사연습
- 7월: 대규모해상기동훈련, 대잠수함훈련, 공군전대실탄폭격훈련, 해군특수전훈련
- 8월: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 해상침투훈련, 공군 긴급공유훈련, 공병훈련
- 9월: 공중기동훈련, 대잠수함훈련
- 10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 관련 해상차단, 검색훈련, 대규모합동훈련
- 11월: 공중침투훈련, 함공모함 탑재기강습훈련
- 남조선언론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군과 피뢰군이 2008년부터 2010년말까지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서 벌려놓은 대규모합동훈련은 120여차, 피뢰군단독의 주요군사연습은 무려 980여회에 달한다.
- 이러한 사실들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이 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유린하고 전쟁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3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은 반공화국 대결정책과 전쟁책동의 산물이고 연장이다.

남조선의 현 피뢰당국이 집권하여 먼저 착수한것이 바로 피뢰군과 인민들속에 동족대결의식과 전쟁열을 고취하는것이였다.

피뢰당국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피뢰국방부와 전방부대부터 찾아갔으며 피뢰국방부의 첫 업무보고도 전일자를 파는 달리 제3기전군사령부에서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러자면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떠벌였다. (《KBS》 2007. 12. 31, 《노컷뉴스》 2008. 3. 26)

또한 역대 피뢰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전군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피뢰군합동화력시범훈련에 직접 참가하여 북과 적대상태에 있는 특수한 정황에 맞게 군의 안보의식을 강화해야 하고 북과 싸워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뉴스시》 2008. 9. 26, 《연합뉴스》 2010. 5. 4)

《불과 50km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위험도 무릅쓸 단단한 각오를 가지라》,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 다.》는 등의 로골적인 전쟁선동이 다 집권자의 입에서 나왔으며 《3일만 참으면 전쟁이 끝난다》는 폭언도 남조선호전분자들속에서 벗어지 튀어나왔다. (《한겨레》 2010. 12. 27, 《프레시안》 2010. 6. 3)

피뢰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부호전분자들의 취임식과 군부회의 등에서 지난해 10년간 안보의식이 약화되었다는나, 북을 항상 《최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싸울 생각만 해야 한다는나 하는 등의 극단한 동족대결, 전쟁의식이 고취되었다. (《KBS》 2008.

- 1. 4. 《문화일보》 2008. 4. 12, 《연합뉴스》 2010. 12. 4)
- 피뢰군의 정신교육에서 북은 《가장 핵심적인 적》으로 규정되고 일상적인 훈련과 경계근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교들이 사병들에게 《대전관》을 심어주는 일과를 거쳐야 하며 사병들은 《우리의 적은 북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선서와 결의문을 의무적으로 외치는데것이 제도화되었다. (《연합뉴스》 2010. 9. 25)
- 피뢰군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들에 북을 《적》으로 규정된 구호판들과 선전물들이 설치되고 훈련장의 사격목표와 《결명지》 들도 철두철미 감히 북을 상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국민뉴스》 2011. 2. 12)
- 6.25전쟁기행사, 서울수복 기념행사, 인명상륙작전재연행사 등 반공화국대결경매대극들이 피뢰당국의 주관하에 역대 최대의 규모로 벌어지고있으며 민간인들이 참가하는 대규모투력시위, 화력시범 등이 TV로 남조선 전역에 실황중계되고있는 형편이다. (《파이낸셜뉴스》 2010. 9. 28)
- 피뢰군주둔지마다 《안보공원》이라는것이 생겨나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대한 적대적의식으로 세워지고있으며 피뢰군부대안에서 10대의 어린 학생들까지 완전군복차림으로 전쟁교육을 받고있다. (《세계일보》 2010. 1. 20, 《연합뉴스》 2010. 7. 14)
- 피뢰당국의 특별지원하에 서해무장총돌사건과 6.25전쟁을 소재로 하고 우리 제도와 군대를 악랄하게 모독하는 영화들이 대대적으로 제작상영되고 우리 민족끼리의 구호가 울려나오던 거리와 광장에서 군복차림의 보수우익쟁대들이 모여들어 《반공》, 《열공》을 부르짖고있다.
- 그 광경은 마치 제2차 세계대전전야에 군복에 완장을 두르고 전쟁열을 올리는 파초도이르러드 드의 나치스분자들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광란을 연상케 하고있다.
- 보수패당은 통치기구와 군구조도 전시체제로 개편하고 전쟁장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다.
- 청와대는 이미 2008년에 《위기정보상황팀》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승격시키며 《국가위기관리센터》로, 2010년 12월에는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개편하여 완전한 전시기구로 만들었다.
- 또한 청와대안에 안보특별보좌관직제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라는 기구도 새로 내오고당, 행정, 피뢰군의 전쟁준비태세를 총괄하여 수시로 점검하고있다. (《한겨레》 2010. 5. 23, 《KBS》 2010. 12. 21)
- 그러나가하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전시자원동원법》 등을 전시에 맞게 수정하고 《전시동원기본법》을 조작하러 하고있다.
- 피뢰국방부도 극악한 야전군출신의 현역인들로 교체되었다.
- 지자체 12월에는 야전부대와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등 야전계통에서 악명을 떨친 극악한 호전분자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올라앉았으며 육군참모총장, 야전군사령관 등을 비롯하여 무려 119명에 달하는 장성들이 전쟁광신자들로 교체되었다. (《서울신문》 2010. 12. 16)
- 피뢰합동참모본부의 지휘체계가 전시에 전구급작전사령부의 평양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재로씨야동포단체들 성명 발표

재로씨야동포단체들이 위협천만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광분하는 남조선피뢰패당을 단죄하여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감차트까번강조선공민협회는 성명을 통해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철저적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이라고 단죄하였다.

공화국이 동족끼리 싸우지 말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

을 통하여 해결할때 대하여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민중의 머리에 핵참화를 들뜨우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았다고 성명은 규탄하면서 전쟁발장난소동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로씨야동포들이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조국인민들과 함께 싸워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감차트까번강고통련은 성명을 발표하여 피뢰당국의 공격에 의거하여 아랑곳

없이 끝끝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음으로써 평화의 파괴자, 전쟁광신자로서의 정체를 날날이 드러내놓았다고 단죄하였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담화 발표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이 《침략적인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내외의 강력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방대한 병력과 핵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키리졸브》, 《독수리》

미국에 추종하여 침략전쟁연습을 감행하는 남조선피뢰당국은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담화는 남조선당국이 미국과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는 조선반도의 현 난국을 타개하고 6.15공동선언의 기거라 평화와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인민들 북침전쟁연습을 반대하여 투쟁

도발은 누가 하고 있는가

지금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발판으로 벌리면서 한편으로 그 누구의 《도발가능성》이니, 《3월위기설》이니 하는 따위의 요설들을 계속 내돌리고있다.

《조, 중, 동》을 비롯한 당국의 나팔수들도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북의 추가도발》이라는 각종 모략 기사들로 신문지면을 어지럽게 장식하고있다.

혹백이 전도된 이러한 망발들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파렴치한 कै변이 아닐수야 하는가.

하디엔 침에한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과연 도발을 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대화의 마당을 대결과 전쟁마당으로 뒤집어놓은 남조선당국이다.

북남사이의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을 중시시키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마련하려고 공화국이 모처럼 마련한 북남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결렬시킨것과 그들이 공화국의 거듭되는 대화제와 민간군의 래왕과 접촉에 대해서까지 《북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고의적으로 가로막아나선것도 바로 남조선당국자들이다.

《도발》이요 뭐요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있는 남조선미국합동군사

연습 그자체가 공화국을 반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이다.

20여만명의 방대한 병력과 핵함공모함을 비롯한 수많은 최신전장장비들 그리고 남조선에비군까지 동원되어 60여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 훈련내용, 기일에 있어서 종래의 합동군사연습들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특별히 엄중한 북침전장공격연습이다.

더구나 이번 연습이 그 누구의 《금번사태》를 노리고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것을 공개적으로 떠들어대고있는 형편에서 그 도발성은 더욱 날날이 증명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하고있으니 내외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도발은 저들이 하고 그를 규탄하는 공화국에 《도발》의 감투를 뒤집어씌우려고 발광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이야말로 검은것도 흰것이라고 우기는 모략의 광신자들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문제는 그들이 전쟁불장난을 벌리면서 《도발》설을 요란스레 떠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북남대화

를 차단시키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저들의 호전적정체를 가리우고 새로운 무력충돌을 야기시켜 전면전의 불을 지피자는것이다.

원래 도발은 저들이 하고 남이 도발을 일으켰다고 백벽 고아대며 대결과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것은 남조선호전세력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난해에도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연평도에서 공화국군대의 수차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국적인 포사격도발을 끝내 감행함으로써 포탄이 서로 오가는 험악한 충돌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대신 2차로 포사격도발을 감행하여 북의 대응사격을 유도하고 그것을 구실로 북의 포사격원점들을 타격하며 전면전도 감행하려고 무분별하게 날뛰었다. 그것이 다행히도 전쟁으로 타변되지 않은것은 평화를 바라는 공화국이 극도의 자제와 인내력을 발휘하였기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위협천만만 전쟁연습과 《심리전》, 모략적인 《도발》설로 북을 극도로 자극하여 군사적충돌을 유도해내려고 리성을 잃고 날뛰고있다. 그들은 계획적인 충돌을 위해 그 대비책도 이미 다 갖추어놓았다. 연평도를 비롯한 5개 섬에서만도 국지전을 일으킬수 있는 6가지 《도발》유형을 미리 정해놓고 그 무슨

《이상정후》에 따라 선제타격을 하고 북의 전략적거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내놓고 벌이고있다.

이러한 국지전, 전면전을 예상한 44가지 유형의 내용을 이번 전쟁연습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다.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자는 최전방부대들에 나라나 전쟁열기를 고취하면서 《북의 모든 도발유형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출가요, 말가요 묻지 말고 선조치, 후보고》하라는 도발지령까지 하달하였다. 이것은 서해충돌을 지상에서도 기어 연쇄해보려는 극도의 호전적인 망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각계에서 《3월위기설》의 배경에는 다분히 북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대북강경론, 나아가 《북붕괴론》이 자리잡고있다. 《3월위기설》확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강경보수파들이거나 군부인사라는 점이 그 방증이다.》 등 모략적인 《도발》설을 비난배격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갖은 कै변을 늘어놓아도 엄연한 사실들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몰아오는 장본인, 진짜 도발자가 바로 그들자신이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김철호

남조선군당국이 그 무슨 《도발》과 《유사시대응태》를 운운하면서 울헤안으로 입의 시각에 예비군무력을 동원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원래 남조선에서 예비군무력은 《비상사태》발생시에만 동원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군당국은 이를 수정하여 그 이전이라도 예비군무력을 동원할수 있도록 획책하고있으며 그 계획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남조선국방부는 올해부터 그 누구의 《투수부대침투》와 《시가지전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3만명의 예비군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저격수훈련을 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군당국이 민간군사기구인 예비군무력을 전투부대로 전환시켜 동족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내몰기 위한 또 하나의 악랄한 전시동원준비책동이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준비책동의 일환으로 예비군무력강화에 열을 올리고있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2012년까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민방위기본법》, 《전시자원동원법》 등 예비군동원법들을 전면개정하고 전시를 가상한 《동원기본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개혁기본계획수정안》이라는데서 후방지역방어로 한정된 예비군의 임무도 전방전투와 그 무슨 《수복지역에 대한 민사작전》까지 할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사시》전방전투에 들어갈 4개의 예비군전투사단과 《민사작전》에 투입할 10개 사단을 각각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예비군의 장비개선 및 장구류확보를 위한 자금을 50% 더 늘여 무장장비를 개선하고 훈련방식도 실전을 가상한 교전훈련으로 바꾸는 등 예비군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해했다.

무모한 전시동원준비책동

결국 남조선당국이 올해에 예비군무력을 입의 시각에 동원할수 있도록 하려는것은 이미전부터 벌려온 전시동원책동의 연장이며 그 절정을 이루는것이다. 예비군무력을 강화하려는 남조선군당국의 책동은 그 누구의 《금번사태》를 운운하며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는때에 벌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있다.

방대한 병력과 북침전쟁장비들이 동원된 이번 연습은 《작전계획 5029》에 따라 진행되고있다.

《작전계획 5029》로 말하면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그 누구의 《금번사태》를 떠들며 존엄은 공화국을 해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승격시킨것이다. 현재 이 계획은 《금번사태》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그 발생시 미군과 함께 남조선군이 《즉시 군사적개입으로 이행》하는것으로 되어있다.

남조선군당국의 《예비군정예화》놀음은 이러한 침략기도에 따른것으로서 예비군병력까지도 북침전쟁수행의 기본무력으로 써먹으려 한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성실한 대화제제를 외면하고 민간무력동원체제를 확립하여 남조선의 모든 인적자원을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전쟁의 대포대로 섬기려 하고있다.

지금 온 겨레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긴장완화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요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북침전쟁의 길로 계속 나아가간다면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주광일

미국과 남조선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 조선반도의 협박한 정세는 꼭 60여년간의 조선전쟁쟁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이미 력사자료들을 통해 날날이 폭로되바이지만 미국의 손락밑에 《대동평》의 번거지를 뒤집어쓴 리승만은 전조선적인 통일정부수립을 반대하고 애국적인 《단선단정》놀음을 벌리면서 통일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에 대해 군대와 경찰병력을 내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강도는 퍼로 물젖고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극도에 달해 1950년 5월 30일에 진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세력을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고 규탄배격받던 리승만 《정권》은 미국의 부추김 밑에

위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으려 하였다. 당시 분계연선지대들에서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행위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끊임없이 벌어진것은 전쟁도발의 구실을 마련하고 여차하면 전면전으로 넘어가기 위한 계획적인 책동의 산물이

연선에 도착한 3명의 조국전선 파견원들에게 기관총사격을 퍼부었으며 그들을 불법체포투옥하고 군사재판에 넘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포악한것을 서슴지 않았다.

그에 뒤이어 공화국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 년초부터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적극적인 화답을 할 대신 남조선당국은 모처럼 마련된 예비회담마저 결렬에 몰아가고 외세

소동이라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북은 과거나 지금이나 대화와 협상, 평화를 요구하고있다. 이와 반면에 남조선당국은 리승만 《정권》이 그러했던것처럼 제도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광기를 부리고있다.

엄연한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과연 누가 평화를 바라고 누가 전쟁을 원하고있는가를 명명백백하게 까밝혀주고있다.

은 민족의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남조선당국은 그로부터 초래될 돌이킬수 없는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류철진

소동이라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북은 과거나 지금이나 대화와 협상, 평화를 요구하고있다. 이와 반면에 남조선당국은 리승만 《정권》이 그러했던것처럼 제도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광기를 부리고있다.

엄연한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과연 누가 평화를 바라고 누가 전쟁을 원하고있는가를 명명백백하게 까밝혀주고있다.

은 민족의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남조선당국은 그로부터 초래될 돌이킬수 없는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류철진

조선전쟁쟁야를 방불케 하는 사태

《실용》의 간판을 내걸고 출현한 남조선의 새 《정권》이 집권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있다.

대립되는 정치적리해관계로 하여 여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개헌》과 《공천개혁안》을 둘러싸고 집권층내부에서의 개싸움도 표면화되고있다.

더우기 심각한 경제위기로 민생은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고 이것으로 하여 현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현재 《실용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땅바닥으로 뚝속 곤두박질하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처한 현 위기는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저버린 그들의 반역정치가 빚어낸 필연적결과이다.

알려진것처럼 집권초기 남조선당국은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게 하였다.》느니,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이 되었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 저들이 《서민생활》을 들볶

이 온갖 《공약》들을 광고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정책들이란 하나에서 열까지 근로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몇 안되는 재벌들과 돈있는자들을 비롯한 특권층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인 정책들 뿐이었다.

남조선당국은 《고용의 유

와 함께 대규모전쟁연습의 포성을 울림으로써 대화국면을 전쟁국면으로 뒤바꾸어놓았다.

이것이 집권 3년간의 갖은 악정, 학정으로 남조선인민들과 겨레의 규탄배격을 받고 최악의 통치위기에 허덕이고있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긴장격화와 북침전쟁도발에서 살구명을 찾으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벌리고있는 도발적인 전쟁

과 함께 대규모전쟁연습의 포성을 울림으로써 대화국면을 전쟁국면으로 뒤바꾸어놓았다.

이것이 집권 3년간의 갖은 악정, 학정으로 남조선인민들과 겨레의 규탄배격을 받고 최악의 통치위기에 허덕이고있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긴장격화와 북침전쟁도발에서 살구명을 찾으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벌리고있는 도발적인 전쟁



《실용정부》의 위기는 반역 정치의 대가

《4대강정비사업》에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쏟아부어 재정적자를 증대시켜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위기로 현재 청년실업률은 8.5%로서 최근 6개월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물가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경증경중 튀어오르는 속에 급격히 늘어나고 그 액수는 770조원에 이르렀으며 남조선인구의 5분에 1에 해당하는

《4대강정비사업》에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쏟아부어 재정적자를 증대시켜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위기로 현재 청년실업률은 8.5%로서 최근 6개월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물가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경증경중 튀어오르는 속에 급격히 늘어나고 그 액수는 770조원에 이르렀으며 남조선인구의 5분에 1에 해당하는

《4대강정비사업》에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쏟아부어 재정적자를 증대시켜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위기로 현재 청년실업률은 8.5%로서 최근 6개월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물가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경증경중 튀어오르는 속에 급격히 늘어나고 그 액수는 770조원에 이르렀으며 남조선인구의 5분에 1에 해당하는

《4대강정비사업》에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쏟아부어 재정적자를 증대시켜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날로 악화되는 경제위기로 현재 청년실업률은 8.5%로서 최근 6개월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물가가 하늘높은줄 모르고 경증경중 튀어오르는 속에 급격히 늘어나고 그 액수는 770조원에 이르렀으며 남조선인구의 5분에 1에 해당하는

부질없는 일본의 재첩야망



의 우익단체들이 모여들어 《평유권》을 주장하는 구호를 헤치며 시가행진을 진행하였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이날 이른바 《새로운 력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시마네현의 《다게시마 연구회》 등이 주최한 《다게시마 교육연단》의 토론내용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교원들까지 참가하여 초, 중, 고등학교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달중에 우리 민족의 령토인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하고 그 《평유권》을 주장하는 력사교과서를 검증, 발간할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지금 일본에서는 자

의 본적지를 독도로 옮기는 령토행정야망자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다게시마의 날》 행사나 력사교과서 개정책동, 독도에로의 본적지이전놀음은 다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감행되는 대조선제침책동들이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올해 중에 남조선당국과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성사시키고 피하고있으며 그 무슨 《유사시》를 간관으로 《자위대》의 남조선파병을 운운하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군사적침략의 발판도 마련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국주도하에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것과 때를 맞추어 일본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란도미사일요격모의연습을 벌린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당국이 력사의

의 본적지를 독도로 옮기는 령토행정야망자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다게시마의 날》 행사나 력사교과서 개정책동, 독도에로의 본적지이전놀음은 다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감행되는 대조선제침책동들이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올해 중에 남조선당국과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성사시키고 피하고있으며 그 무슨 《유사시》를 간관으로 《자위대》의 남조선파병을 운운하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군사적침략의 발판도 마련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미국주도하에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는것과 때를 맞추어 일본에서 《자위대》와 미군이 란도미사일요격모의연습을 벌린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당국이 력사의

북침전쟁쟁야를 방불케 하는 남조선인민들

